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교회와 담임목사는 KPCA 해외한인장로회
캐나다 서노회 소속(밴쿠버삼성교회, 밴쿠버지
구촌교회와 같은) 교단입니다.
우광현 담임목사는 한국에서 대한예수교장로
회(통합) 교단이었으며, 서울북노회에서 안수
받았습니다.

KPCA 해외한인장로회

KPCA는 1976년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
고의 소수 교회들이 모여 설립된 이래 캐나다,
멕시코, 중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호
주, 일본 그리고 유럽을 포함하는 해외 한인교단
중 가장 큰 규모의 교단입니다. KPCA는 현재
미국교회협의회(NCCCUUSA)에 속한 36개장교
단 중 유일한 동양인 교단이며, 미국 장로교회
(PCUSA)와 한국 예장통합 교단과 함께 목회자
이동과 교류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에벤에셀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 인도네시아 장상택 선교사

♥ 에벤에셀교회와 기도로 협력하는 교회
- 빅토리아한인교회

모임안내

- ☆ 주일예배 오후 1시 50분
- ☆ 금요모임 매주 저녁 7시 (당분간 휴회)

Online Service

☎ 778-888-9543

📍 vanebenezer.com

♥ 카톡 오픈채팅 -
“밴쿠버에벤에셀교회 문의”



교회소식

♥ 소그룹모임안내: 매일 첫째주는 성찬성례가 있습니다.

♥ 이번 주 성경통독 10월 4일 에스겔 37장 - 10월 10일 에스겔 43장

1.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의 joy> 『하시조』 말씀을 매일 나눕니다. 성경통독과 맞추어 하
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2. 10월 11일 추수감사주일은 캐나다언교회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전 10시30분.
3. <출국> 담임목사는 한국을 11월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4. 10월 18, 25일, 11월 1일 주일설교는 밴쿠버지구촌교회 원로목사인 김명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5. <후회> 금요모임 10월 9일~11월 6일
6. 본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인도네시아 장상택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 대표 영성작가 시리프

296. '하나님 앞에 살기'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
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_마 6:2-4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때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 자랑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
받기만을 기대해야 한다. 이것은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말
씀과도 일치한다.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 덧붙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썼다.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 것을 비밀로 할지라도 그것을 하
나님께 감칠 수는 없다. 주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갚으신
다.

크리스천의 구제는 은밀한 중에 우리 마음을 보고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_존 스토틀 John Stott

제 8권 40호 2026년 10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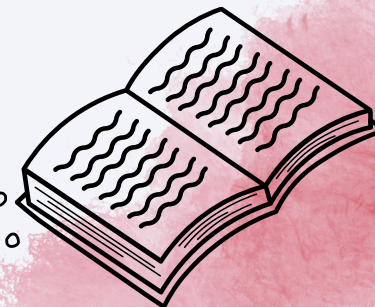
vanebenezer.com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The Lord At Their Head

미가 2:13

 **밴쿠버에벤에셀교회**
Ebenezer Korean Community Church
3977 Albert St, Burnaby. V5C 2E2



주일예배

*에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Please stand all who are able

경배와 찬양 Praise&Worship	다같이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사죄의 기도 Prayer of Repentance	인도자
찬송 Hymn	379장
연보 Offering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여호수아 6장 12-16절 (구약 327)
말씀선포 Sermon	우광현 목사

가보지 않은 길(7) — 똑같은 상황에서 외쳐라

성찬성례 Communion	우광현 목사
*축도 Benediction	우광현 목사

SUMMARY 300

성벽을 무너뜨린 함성은 전쟁 구호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외침, '테루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조건이 아닌, 의심과 불안이 뒤섞인 우리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그분의 일을 이루가십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고백하며 매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과정 자체가 최고 수준의 '테루아'입니다. 성벽은 우리가 아닌 주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테루아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소그룹나눔

1. 지난 주 나의 핫이슈는 무엇인가요? 지체들과 함께 나눕시다.
2. 이스라엘이 지른 함성은 전쟁 구호가 아닌 예배의 외침, "테루아"였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지친 나의 불안한 삶 자체가 "테루아"임을 들었을때 가장 와 닿은 느낌은?
 - ① 온전한 자격이 없어도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을 찾을 때
 - ②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에 눈물로 주를 바랄 때
 - ③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불평 대신 찬양과 기도로 부르짖을 때
 - ④ 내 불완전한 모습에도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 ⑤ 완벽한 순종은 못해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 ⑥ 기타:
3. "가보지 않은 길" 시리즈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광야에서 일 하셨습니다. 내가 경험한 완벽하지 않은 중에 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 ① 내 상황, 여건이 불확실할 때 오히려 길을 만드신 주님
 - ②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일하신 주님
 - ③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도 끊임없이 인도해 주신 주님
 - ④ 기댈 것 없는 현장에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는 주님
 - ⑤ 역경과 고난을 통해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신 주님의 손길
 - ⑥ 기타:
4.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직 내 눈앞의 여리고 성벽은 서 있을지라도, 이번 한 주간 나의 테루아는 무엇인가요?
 - ① 지루하고 답답해 보여도 매일 기도의 바퀴를 돌
 - ② 사람들의 비난이나 내 안의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돌
 - ③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걱정을 맡기며 예배하기로 함
 - ④ "이미 이기었노라" 하신 완료된 약속을 믿고 기쁨의 함성을 외침
 - ⑤ 시간이 걸려도 외치라고 할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했음
 - ⑥ 기타:
5.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문장과 각자 기도제목을 나누요.



지난 주 연보

- 주일연보 \$ 60
- 십 일 조 \$ 800

온라인연보계좌
offering@vanebenezer.com

이렇게 기도합니다

1. 교회를 지켜주소서
주의 몸 된 교회로 든든하게 서가며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2. 예배를 지켜주소서
오직 예수만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3. 믿음을 지켜 주소서
연약하지만 그러기에 더욱 주님을 붙들고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4. 가정을 지켜주소서
매 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은혜의 가정되게 하옵소서
5. 건강을 지켜주소서
질병과 스트레스,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위로 하옵소서
6. 학교와 직장을 지켜주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며 성취할때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7. 삶을 지켜주소서
비전으로 살게 하시고 목적과 기대를 주셔서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베푸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